‘내홍만 5개월’ 손학규 난공불락 과제만 수두룩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 … ‘당 장악 실패’ 평가 속 갈등 계속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당 운영 방향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손 대표는 지난해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정치개혁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손 대표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하다.

창당 초기부터 사그라들지 않는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손 대표 취임 이후 또다른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 대표 취임 후 현재까지 내홍 기간만 ‘5개월 이상’ 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바른미래당 내 갈등 장기화 배경으로는 △손 대표의 당내 장악력 부족 △호남계 의원들의 ‘보수 불가’,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보수 고집’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력 부족 △창당 대주주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의 몸 사리기 등이 꼽힌다.

손 대표는 전대에서 사실상 ‘안철수계’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4·3 보궐선거 참패·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안철수계 인사들과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지지 세력 다수를 잃었다.

당 대표에 오른 후 자신의 대선 준비 조직이었던 ‘동아시아미래재단’ 출신 인사들을 대거 등용시켰다. 호남계 인사들이 당권파로 분류되면서 손 대표를 돕고 있지만, 여전히 퇴진파인 유승민·안철수계 인사들에 비하면 소수로 분석된다.

손 대표가 당내 장악에 실패하면서 사안마다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노선 확립,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의 등판과 갈등 세력 내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 보인다.

손 대표 지도부에 반기를 든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의 통합 선언문 ‘합리적 중도·개혁적 보수’가 중심이 되려면 ‘중도보수’를 당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호남계 의원들은 이미 지난해 6월 지방선거부터 바른미래당을 ‘보수’로 분류하지 말라고 반발해왔다. 호남 지역에서 ‘보수’를 달고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의 ‘잠행’ 또한 길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유승민·안철수’가 힘을 모은 정당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지방선거 참패 내상에 두 전 대표는 모두 정치 전면에서 멀어져 있다.

현역 의원인 유 전 대표는 간간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국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인 개인으로는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전 대표는 독일 유학 중인 상황에서 끊임없이 역할론이 나오지만 정치 복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김윤호 기자

대안정치 “나경원 ‘광주일고 정권’ 망언…망국적 지역감정”

“틈만 나면 자극…나라 분열로 몰고가는 고질병”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들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1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망언을 규탄한다”고 했다.

김정현 대안정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가 부산에 가서 문재인 정부는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망언을 한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PK(부산·울산·경남) 정서를 자극하기위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건드렸다”며 “그 죄질은 내란죄에 준하고 광주일고 동문들도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한국당 사람들은 틈만 나면 호남과 5·18을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편취하려 하는가”라며 “나라를 끊임없이 분열로 몰고가는 그 고질병에 대해 이번 기회에 철퇴를 내리지 않는다면 한국당의 망언 릴레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 본인은 정계를 은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국민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시켜서라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인사검증 정쟁되면 좋은사람 발탁 어려워”

與지도부에 조국 청문회 관련 우려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을 위해 1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미얀마와 라오스를 국빈 방문하고 태국을 공식 방문해 양자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회에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국회가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려워진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길을 앞두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해 이렇게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오는 2일부터 3일까지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공방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회 과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타냈다는 게 참석자의 전언이다.

이날 회동에는 문 대통령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해 문 대통령과 10분여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6일에 걸쳐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4개국 순방 길에 올랐다.

뉴스1

하태경 “손대표 사퇴 번복 대한 당 입장 정해야” 긴급의총 요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손학규 대표의 사퇴 번복에 대한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 대표가 추석까지 당 지지율 10%가 안되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번복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 의원은 “오늘 손 대표는 ‘아직 당을 제대로 살려야 하겠다는 사명이 남아있다’며 사퇴 번복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손 대표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도의와 염치를 다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 의총을 소집해 손 대표의 사퇴 번복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당 혁신위원회는 2주(활동기간에) 오직 지도부 교체론과 손학규 퇴진론만 갖고 얘기했다”며 “혁신위원회 통해 당 활력화를 기여해야 했다. 저에겐 아직 당을 제대로 살려야 하겠다는 사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뉴스1

홍준표 “조국 ‘쉴드’보니 ‘뻔뻔한 좌파·비겁한 우파’ 명언인듯”

“유시민·이재명·박원순 등 윤리적 판단 기준 조국과 같은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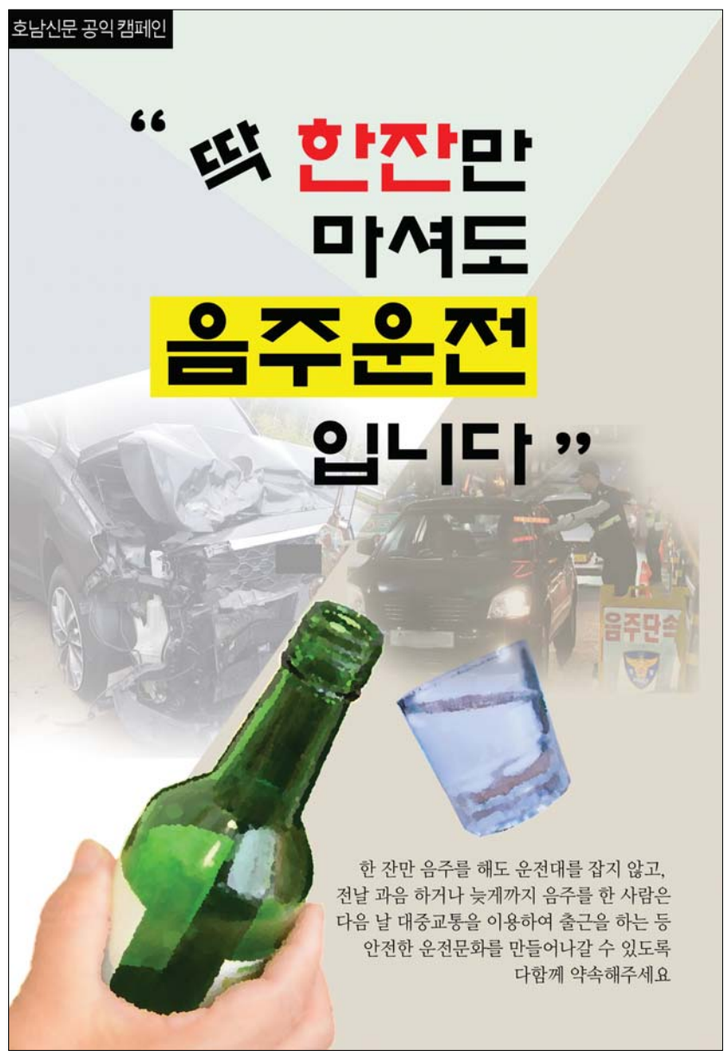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유시민, 이외수, 공지영, 이재명, 박원순 등 총출동해서 조국을 쉴드치는(보호하는) 것을 보니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는 말이 명언인 것 같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쉴드 치는 사람들의 상식과 윤리적 판단 기준은 조국(후보자)과 같은 수준인 모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전 대표는 “그 정도는 해 먹어도 된다는 건가”라며 “비겁한 우파가 되지 않기 위해 야당은 분발 하라.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비리 덩어리를 못 막으면 야당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뉴스1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